

강진군 군민평가단, 정기회의 개최

공모사업유치 및 국·도비 확보 총력 외 20개 평가대상 선정 “군민-공직자 간 가교...행정서비스 수준 높이는 중요 역할”



강진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욱 강진군수와 군민평가단,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군민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군민평가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강진군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기획환경문화, 일자리경제, 복지여성, 농수축산, 안전건설소방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군민평가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80개의 군정 주요 사업 중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1개 사업을 올해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하반기에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시 시상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군민평가단은 군민과 공직자 간의 가교로서 강진군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웰니스 전문 인력 양성과정 학생들 완도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직접 체험

광주여대 학생·교직원 35명 참여

완도군은 지난 18일 광주여자대학교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정 학생들이 방문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여대 방문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웰니스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완도를 방문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웰니스 관광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실무 체험은 광주여자대학교 김지현 교수를 중심으로 식품영양학과, 미용과 학부, 항공서비스학부 등 재학생과 교직원 35명이 참여했다.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완도군에 먼저 체험을 제안하여 이루어졌으며, 체험 비용은 전액 대학에서 부담했다.

체험은 해변 엑서사이즈, 노르딕워킹, 명상 등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과 해양치유밥상, 꽃차 시음 등으로 진행됐다.

체험에 참가한 정선주 학생은 “처음에 낯설게 조금 힘들었지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몸도 개운해지고 전복, 해조류가 들어간 ‘해양치유밥상’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교수는 “타지역과 달리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완도군에 관심이 많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새로운 웰니스 관광 상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대학, 기업, 협회 등 실무 체험형 관광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양치유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연말 준공되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2023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서울 서대문구와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눈길

학습 지도·진로 상담·문화 교류 등 교육 격차 해소 기대

장흥군은 자매도시인 서대문구와 협력해 ‘2022 자매도시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멘토링은 서대문구 대학생 1명과 장흥군 지역 청소년 2명이 짝을 이뤄 진행하는 학습 지도, 진로 상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모두 5개 팀으로 꾸려진 참여 학생들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1:2 멘토링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6회(3. 26. ~ 5. 21.)와 대면 활동을(5월 초) 병행해서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멘토-멘티 자기 소개 △버크만 진로 적성 검사하기 △꿈&희망 생각해 보기 △1박 2일 지역 탐방(연세대 탐방, 지역 예술·문화 탐방) △공부법 배우기 △직업 탐방 △꿈 선언문 작성하기 등이다.

장흥군과 서울 서대문구는 2013년 2월 5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지역축제, 직거래장터 참여 등 꾸준히 친선 교류를 이어 왔다.

장흥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문화체험, 학습적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된 양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우수 시·군 선정

2억1200만원 모금...자발적 나눔 실천으로 이웃 사랑 펼쳐

진도군이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란 슬로건으로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캠페인을 통해 진도군은 2억1,200만원의 모금액을 모집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진도군민들의 이웃사랑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빛났다는 평가이다.

특히 매년 7개 읍면에서 일일차집을 운영,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일일차집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자발적 나눔 참여로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긴급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생계 곤란을 포함 긴급지원사업 등 주



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군민들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진도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2022년 공예품 개발지원사업 공모

해남군은 공예산업 육성과 상품화 개발을 위해 관내 공예인(업체)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예품 개발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해남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예품 생산자(업체)이다. 제품 개발, 컨설팅, 재료, 홍보, 포장재 구입 등에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남을 주제로 한 공예품 1점 이상 제작하고, 공예품 개발지원사업 전시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공예인의 참여와 공예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 지원 조건, 평가 기준 등을 대폭 변경하여 추진된다. 기존 전라남도 및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에 국한되어 있던 평가 기준이 공예품을 출품한 공모전으로 확대하고, 해남을 주제로 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전시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더불어 연말 공예품대전 우수입상자 판로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 또한 공예품을 출품한 공모전으로 확대 적용하여 다양한 공모전에서 해남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2021년도 지원을 받고 2021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지 않은 업체, 사업 영역이 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